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6.4.30.(목) 14: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운영부	책임자	부장	박혜원	032-290-2030
		담당자	학예사	최수지	032-290-2094

장바구니 들고 즐기는 전시

내 글씨 취향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특별전 《글씨상점》

- 5월 1일~8월 23일, ‘취향’ 따라 즐기는 참여형 전시
- 추사 김정희부터 ‘미생’·‘타짜’ 글씨 작가까지 한자리에
- 글씨 카드 수집·취향 분석·소장품 추천 등 체험 콘텐츠 눈길

국립세계문자박물관(관장 김명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획특별전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서예와 현대 캘리그래피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글씨 취향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특별전이다.

취향 따라 담아보는 글씨, “글씨 취향을 쇼핑하다”

이번 전시는 ‘글씨 취향을 쇼핑하다’는 이색 콘셉트를 도입했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전시장에 입장한 뒤, 세 개의 전시 공간을 돌며 마음에 드는 글씨 카드를 담을 수 있다. 마지막 공간인 ‘계산대’에서는 카드를 스캔해 12가지 글씨 취향 유형 가운데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그에 어울리는 전시 작품도 추천받을 수 있다.

추사부터 ‘미생’ 글씨 작가까지… 세대를 잇는 글씨 예술

전시에는 한국 서예사의 대표 작가들과 현대 대중문화 속 글씨를 이끌어온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먼저 한국 서예의 정수로 꼽히는 추사 김정희의 진솔한 필치가 담긴 〈김정희 필 서간〉을 비롯해, 위창 오세창의 《전서 병풍》, 인천을 대표하는 서예가 검여 유희강의 〈영수가복〉, 그리고 한글 서예의 현대화를 이끈 평보 서희환의 〈보람〉 등 박물관이 엄선한 진귀한 소장품들이 대거 공개된다.

현대 작가들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드라마 <미생>, 소주 브랜드 <화요> 제호로 잘 알려진 강병인, 영화 <타짜>와 드라마 <해를 품은 달> 타이틀 작업으로 알려진 이상현, 전각과 서예의 조형미를 선보이는 조용연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이 창작에 사용한 실제 작업 도구와 정교한 한글 전각 작품을 함께 전시해 창작의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전시 구성: 개성·교류·창작으로 이어지는 글씨의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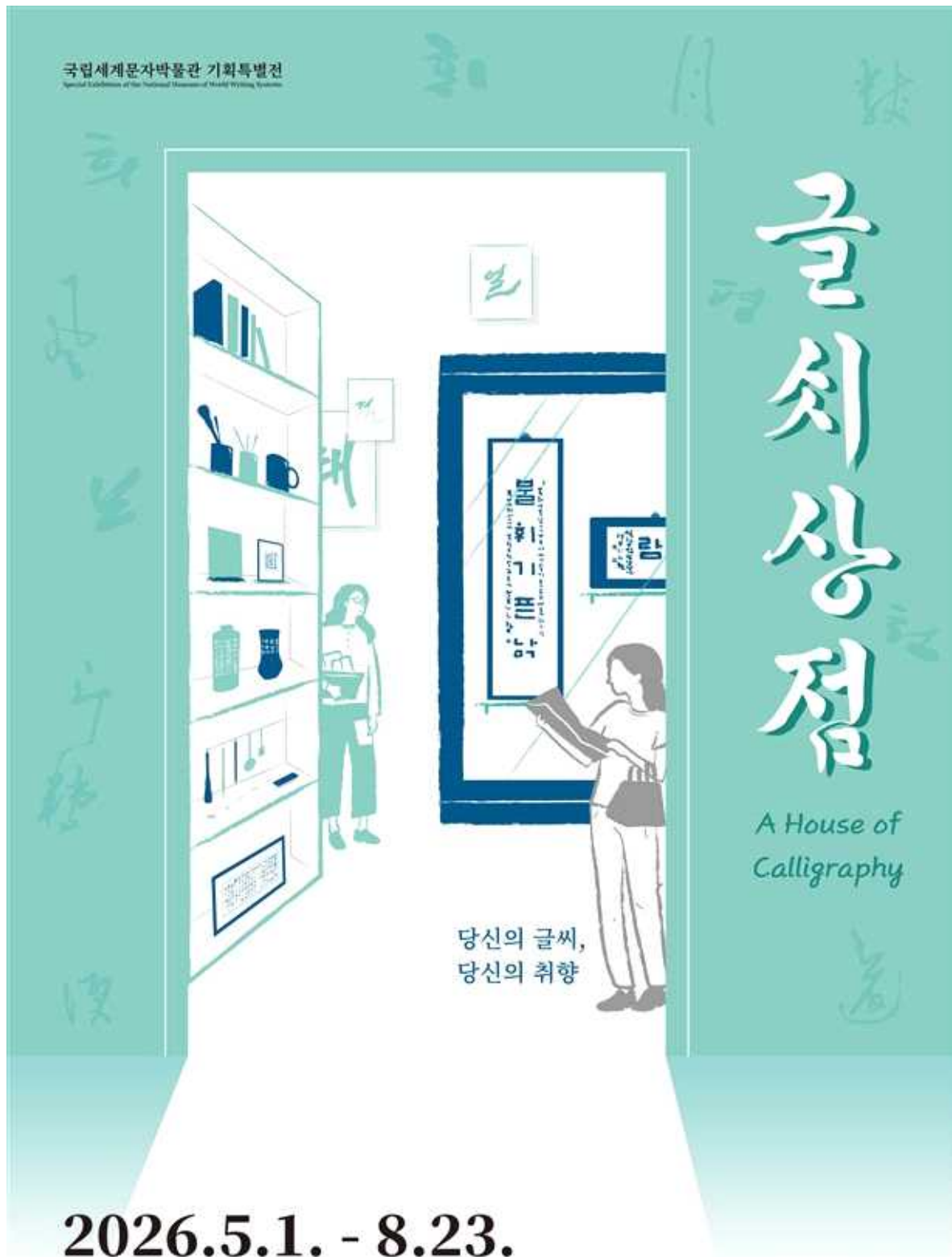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개성편집숍: 태’에서는 영화 포스터, 음반 표지, 브랜드 로고, 문자도 등을 통해 글씨의 디자인적 매력을 소개한다. 2부 ‘마음 선물가게: 결’에서는 글씨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던 선조들의 문화를 조명한다. 마지막 3부 ‘주인의 작업실: 일’에서는 실제 작업 도구와 연습 자료 등을 통해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창작 과정을 보여준다.

전시장 한편에는 이번 전시의 특별함을 더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상현·조용연 작가가 진행한 사전 클래스에 참여한 시민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글씨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준다.

김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서예를 어렵게 느끼는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했다”며 “전통과 현대의 글씨 매력을 통해 관람객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전시 포스터
2. 주요 전시 자료
 - 2-1. 검여 유희강 필 영수가복(현대)
 - 2-2. 위창 오세창 필 전서 병풍(1938)
 - 2-3. 추사 김정희 필 서간(1856)
 - 2-4. 평보 서희환 필 보람(1988)
3. 전시 구성안
4. 이미지 자료



1층 기획전시실 1st Floor Special Exhibition Hall

NMWS 국립세계문자박물관
NATIONAL MUSEUM OF WORLD WRITING SYSTEM



검여 유희강 필 영수가복(현대)

‘길이 좋은 복을 받으라’는 뜻의 ‘영수가복(永受嘉福)’을 전서체로 쓴 작품으로, 인천 출신 서예가 검여 유희강이 지인에게 선물한 글씨이다.



위창 오세창 필 전서 병풍(1938)

명대 문인 고렘의 시문을 바탕으로 서호(西湖)의 풍경을 전서체로 옮긴 6폭 병풍 작품이다.

산과 호수, 비와 안개, 달빛과 어등 등 변화하는 자연 경관과 그에 따른 정서를 시구와 글씨로 풀어내고, 이를 조형성이 강한 전서로 표현해 시와 글씨가 어우러진 감상을 전한다.

아울러 시를 짓고 글씨로 나누던 문인 교유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병풍 형식을 따라 감흥이 점차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추사 김정희 필 서간(1856)

추사 김정희가 화엄경 간행과 관련해 보낸 편지로, 불경 판각과 간행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준 이에게 감사를 전하고,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병중에 급히 쓴 글이지만, 개인적 소통의 기록을 넘어 글씨 자체로도 깊은 미감을 전한다.



평보 서희환 필 보람(1988)

한글 서예가 평보 서희환이 쓴 대자 작품으로, 전통 서법을 바탕으로 한글의 조형미를 탐구한 그의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전서와 예서의 필의를 더해 ‘보람’ 두 글자를 간결하면서도 힘 있게 구성하고, 넉넉한 여백과 안정된 화면으로 글자 자체의 형상을 강조했다.

- 전 시 명: 글씨상점: 당신의 글씨, 당신의 취향
- 전시기간: 2026년 5월 1일(금) ~ 8월 23일(일)
- 전시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 3주년을 맞아 소장품을 중심으로 기획한 참여형 전시로, ‘상점’이라는 콘셉트를 통해 관람객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글씨를 선택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통 서예부터 현대 캘리그래피까지 한국 글씨 문화를 소개하며, 글씨를 쓰고 감상하는 것의 의미와 자기표현으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전달한다.

[프롤로그] 마음에 드는 글씨를 담아보세요.

- 우리는 문자를 읽지만, 때로는 그 의미보다 먼저 그 문자가 어떤 ‘글씨’로 쓰였는지를 보게 된다. 시·서·화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에서 글씨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의 한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문자를 아름답게 쓰고자 한 마음은 글씨를 다양한 조형으로 확장시켰으며, 그 흐름은 전통서예에서 현대 캘리그래피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글씨에 담긴 마음과 정성, 개성의 가치를 ‘상점’이라는 비유적 공간으로 풀어낸다. 프롤로그에서는 관람객이 장바구니를 하나씩 가져가며 전시를 시작하고, 지도에 따라 세 곳의 상점을 둘러보며 각 체험매대에서 취향을 반영하며 글씨 카드를 한 장씩 고르게 된다.

[1부] 개성편집숍: 태

- 장르와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글씨의 모습들
 -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음반 표지, 브랜드 로고 등에서 대상의 성격과 이미지를 형성해 온 한글 캘리그래피 상품 아카이브 공간이다. 아울러 글씨의 회화적 확장을 보여주는 장르인 문자도를 함께 조명하며, 조선 후기 문자도 병풍부터 현대 한글 캘리그래피 문자도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형식을 넘나드는 글씨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 ▶ 전시품: 드라마 《미생》, 오투기 열라면의 글씨를 쓴 강병인 작가의 상품과 문자도, 영화 《타짜》,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글씨를 쓴 이상현 작가의 상품과 문자도, 조선 후기 문자도 병풍 2점 등

[2부] 마음 선물가게: 결

○ 글씨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고 교류한 문화를 소개

- 이 공간에서는 글씨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교류하던 문화를 소개한다. 서예는 쓰는 이의 마음과 정신이 담기는 예술로 여겨졌으며, 저마다 다른 필치와 형식을 통해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 되기도 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소장한 위창 오세창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집 '탐원'을 거점으로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직접 쓴 글씨를 서로 선물하고 나누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 ▶ 전시품: <유희강 필 영수가복> (20세기), <김진민 필 대련> (1931), <김정희 필 서간> (1856), <시회도권> (근대) 등

[3부] 주인의 작업실: 열

○ 다양한 글씨가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에 주목

-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에 착안하여, 한 작품의 글씨가 완성되기까지 축적된 연습과 탐구의 시간을 조명한다. 문방사우를 비롯한 전시 참여 작가들의 실제 작업 도구를 소개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서예 법첩과 임모 작품을 소개하고, 현대 캘리그래피 작가들의 실험적 작업을 함께 선보이며 글씨에 담긴 수행성과 창작의 과정을 살펴본다.

- ▶ 전시품: 조용연 작가의 작업실 재현과 현대 전각 작품, 참여 작가들의 도구, 『괘설당법서』(명나라 말 편찬), <오세창 필 서예> (1947), 강병인 <‘ㅎ’모음>, 이상현 <해주 아리랑> 등

[에필로그] 당신의 글씨 취향을 찾아드립니다.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을 통해 나만의 글씨 취향을 찾아보는 공간

- 세 개의 상점에서 고른 글씨 카드를 계산대에서 스캔하면, 12가지 글씨 취향 가운데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작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예를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박물관 소장품을 자신의 취향과 연결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이상현, 조용연 작가의 사전 클래스에 참여한 시민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여, 글씨를 읽는 것을 넘어 보고, 느끼고, 직접 써보는 경험으로 전시를 마무리한다.

- ▶ 전시품: 글씨 취향 영수증 체험, 시민 작가 참여 작품 전시 등



[사진1] 프롤로그 공간



[사진2] 1부-개성편집숍: 태



[사진3] 2부-마음선물가게: 결



[사진4] 3부-주인의 작업실: 열



[사진5] 에필로그 공간(시민 참여 전시)



[사진6] 에필로그 공간(영수증 체험존)